

Campaign News

“괜찮아, 청춘이야.” 청춘들의 유스빌드

올해로 4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만의 행사인 '유스빌드(Youth BUILD)'가 진행되었다. 총 15개 국가 50만여 명의 아시아 청년들이 참여하여 재미있는 해비타트 활동을 펼쳐나갔다.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국내가 안 된다면 해외에서 지으리라

3개월 동안 진행된 유스빌드 기간 동안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파견된 봉사단은 봉사일정 중 하루를 정해 유스빌드에 참여하는 뜻을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총 228명의 학생들이 지구촌(Global Village)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지에 봉사를 가 아시아 전역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동

참하며 젊음의 열정을 불태웠다. 특별히 네팔의 경우 3월 21일, 총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약 1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집을 짓는 봉사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국을 포함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 770 여명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태국, 피지, 필리핀, 인도 등지에 해외 봉사를 가 집을 지었다.



Sweet Home on Cookies

아이싱쿠키클래스에서 스위트 홈을 직접 만들었다.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모양의 쿠키를 나누어주고 그 위 아이싱 작업을 더하는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집 모양의 쿠키 위에 ① 해비타트에 기대 혹은 바라는 것 ② 열악한 주거환경의 이웃에게 주고 싶은 집이거나 혹은 내가 살고 싶은 집 ③ 안락한 집으로 인해 변화된 삶과 가정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주고 1시간 동안 쿠키를 장식한 뒤 그 후에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월부터 3월까지 총 13회 진행, 161명이 참가하였으며, 만든 쿠키 3개 중 2개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물로 전달해 총 32가정에 말 그대로 스위트 홈을 전하기도 했다.

R U Habitat People?

지난 2월 27일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에 자칭 해비타트 피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해비타트 동아리, 똑딱블로거, 크루리더 등 해비타트 주역들이 모여 각자가 생각하는 해비타트에 대해 나누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이 날 특별히 동해광희고 해비타트 동아리 라선근, 해비타트 천년지기 이철원, 2014 대학동아리연합회장 황대호 등이 무대에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졌고 이어 어쿠스틱 듀오 '모던다락방'의 노래와 연주로 참석한 모두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해피파티 참가비와 기념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방글라데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비용으로 전달기로 했다. 필리핀과 인도에서는 유스빌드를 위한 모금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우리 집에 ○○○가 없다면?

주거환경 중 하나를 골라 '없이 살기' 체험하는 참여 이벤트로 전기, 화장실, 물, 가스, 난방,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 생활조건으로 살았던 본인의 체험기를 올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인지를 시키기 위한 이벤트였다. 약 30명이 참여하여 해비타트 공식 페이스북에 후기를 올려주었으며 특히나 3월 28일 세계 절전의 날 '전기 없이 살기'에 많은 참여를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3월 22일 하루 동안 자카르타 시내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fun walk' 행사를 가졌다.

전 세계 유스빌드 2015년의 성과

